

“무등기 우승 내가 책임진다”

미래의 야구스타들이 15일 무등기야구장에서 개막하는 제16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출전을 위해 광주를 찾는다. 지난해에 비해 ‘대어급’선수들이 없다는 평가지만 알토란 같은 선수들이 즐비하다.

광주 동성고 유경국

제16회 무등기 고교야구

개막 D-5

동성고 유경국(3년)과 진흥고 김정훈(3년)은 이번 대회에서 광주팀의 자존심을 걸고 마운드 한 관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자신의 전국대회 첫 등판이었던 황금사자에서 6이닝 노히트를 기록한 유경국은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에 140km초반대의 직구를 던진다. 안정된 제구력도 장점이다. 지난해 진흥고의 대부기 우승을 이끌었던 김정훈은 허리가 안 좋아 정상적인 피칭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 출전을 목표로 다시 글러브를 들었다. 140km 중반대의 직구와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포스트 박찬호를 꿈꾸는 세광고 김선기(3년)도 눈길을 끈다.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을 맺은 김선기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된 투구가 장점. 중학교 시절부터 140km 공을 뿌렸던 공주고 안승민(3년)은 145km가 넘는 강속구를 장착했다. ‘잠수함 투수’들의 출격도 준비됐다. 군산상고 박종훈(3년)은 앞선 황금사자에서 한 경기에 1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닥터



세광고 김선기, 아탑고 이현준, 경기고 이성곤

동성 유경국·진흥 김정훈 마운드 자존심 대결 청원 투수 박상옥 대회 MVP 2연패 도전 이순철 전 LG감독 아들 이성곤 맹활약 기대

K’로 이름을 알렸다. 컨트롤이 좋은 인천고의 박민호(3년)도 매서운 싱커로 잠수함 투수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좌완 투수들도 마운드 전면에 배치됐다. 광주진흥고 임기준(3년), 아탑고 이현준(3년)·부산고 김대유(3년)는 수준급의 피칭으로 좌투수들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국내 최장신인 순천 효천고의 좌완 장민익(3년)은 207cm의 키에서 내리찍는 직구가 일품이다. 야구인 2세대도 넘치는 야구 끼를 보여줄 계획이다. 경기고의 유격수 이성곤(3년)은 이순철 전

LG감독의 아들, 이성곤은 아버지를 빼닮은 야구센스와 수비력으로 경기고 타선을 이끌고 있다. 같은 학교 1학년 강진성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강광희 심판의 아들이다. 이외에도 인천고 내야수 양원혁(3년)은 인하여 양승관 감독의 아들이고, 부천고 투수 이청하(3년)도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는 이병훈 KBS 야구해설위원의 아들이다. 해태시절 투수를 했던 문성록 전 KIA 운영과장의 아들 진제(3년)군도 동성고 내야수로 출전한다. MVP 2연패에 도전하는 청원고의 박상옥(3년)도 주목할 선수다.



지난 대회 마산고와의 결승에서 완봉승을 거두며 팀 우승의 주역이었던 박상옥은 한층 성숙해진 투구로 다시 무등기를 찾는다. 절묘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한 커브와 체인지업, 140km초반대의 직구를 장착한 박상옥은 “지난 1년동안 변화구 가다듬기에 주력 해왔다”며 “올 시즌 초반 팀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무등기 우승깃발을 지키기 위해 모든 팀원들의 열기가 뜨겁다”고 대회 참가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잘나가는 KIA...팬들은 우울?

6월 이맘때쯤이면 KIA 선수들과 팬들의 가슴을 아련하게 하는 이름이 있다.

실록이 푸르던 1999년 6월10일, 22살이라는 뜻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투수 김상진. 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김상진은 아픈 이름으로 팬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

많은 KIA팬들은 1997년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와의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김상진이 보여준 환한 미소를 잊지 못한다.

20살의 어린 투수 김상진은 그 큰 무대에 올라 9이닝 1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LG를 제압하며 한국시리즈 최연소 완투승의 주인공이 됐다. 팀은 어린 투수의 두 팔에서 9번째 우승을 이루어냈다.



<이대진>

을 달고 경기장에 나섰다. 이날 선발로 나선 이대진의 모습은 비장하기 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이대진은 초반부터 히어로즈의 공세에 무너졌고, 팀은 결국 2-10으로 패하고 말았다.

올 시즌에도 KIA 선수단은 목동구장에서 김상진의 기일을 보내게 됐다.

오늘 ‘영원한 아기호랑이’ 김상진 추모 10주기

형 같은 선배 이대진 부진 맞물려 애절한 심정

하지만 불꽃 같은 공을 던지며 팀에 우승을 선사했던 김상진은 2년 뒤인 1999년 위암으로 투병하다 불꽃 같은 삶을 마감했다.

진흥고 선배 이대진의 비범함은 그 누구보다 컸다.

10타자 연속 탈삼진의 주인공으로 투수 왕국을 이끌었던 이대진은 2000년 자신의 배번 26번을 떼고 김상진이 달던 11번을 새로 달았다.

안타깝게 떠난 후배의 뒷까지 하기 위한 선배의 애절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부상이 재발하면서 지독한 재활에 매달려 왔던 이대진은 결국 후배에게 누를 끼칠 수 없다며 스스로 11번을 떼어내고 말았다.

2008년 6월10일 KIA는 목동구장을 찾아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펼쳤다. 이날 KIA 선수단은 유니폼 소매에 검은 리본

김상진을 위해 공을 던지고 싶어했던 이대진이 통산 100승에 3승을 남겨두고 있지만, 2군에 머물고 있어 다시 찾아온 기일을 맞는 팬들의 마음은 더 아련하다.

올 시즌 1군 경기에 두 차례 선발로 나선 이대진은 두 경기에서 8이닝을 채우는 데 그치며 9.0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김상진 선수의 기일을 하루 앞둔 9일은 이대진 선수의 생일이었다. 그만큼 올 6월을 맞는 팬들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1990년대의 위대했던 두 투수 김상진과 이대진은 영원한 ‘아기 호랑이’와 ‘에이스 오브 에이스’로 팬들 가슴 깊은 곳에 남을 것이다.

한편 KIA 선수단은 10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서 김상진 선수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 리본을 단 채 경기를 펼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7차전 경기를 하루 앞둔 9일 피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하고 있다.

한국, 사우디 다시 한번 꺾는다

허정무호 오늘밤 월드컵 최종예선...이근호·박주영 투톱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에서 거뒀던 통쾌한 승리의 감격을 재현하겠다.’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골키퍼 이근호(주빌로 이와타)와 박주영(AS 모나코)이 10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B조 최종예선 7차전 홈경기에서 한국 공격의 쌍두마차로 나선다.

지난 7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최종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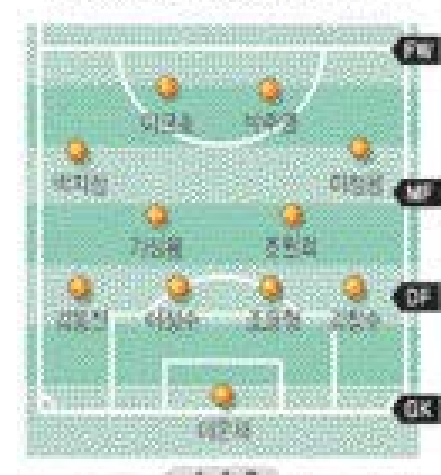
선 6차전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이겨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태극전사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대표팀은 ‘원발 달인’ 김치우(FC 서울)가 탈장 수술 때문에 중도하차했고 UAE와 경기 때 퇴장을 당했던 김정우(성남)와 옐로카드를 받아 경기가 누적된 이영표(도르트문트), 오범석(사마리아)이 뛰지 못하지만 나머

지 인력을 풀가동한다.

8일 파주 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회복 훈련을 지휘했던 허정무 감독은 김정우 대신 조원희(위건)를 투입하고 수비수 이영표와 오범석의 공백을 김동진(제니트)과 김창수(부산)로 메운다는 복안이다. 최전방에는 이근호와 박주영이 투톱으로 나서고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서울)이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나선다. 기성용(서울)과 조원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뒤를 받치고 김동진-이정수(교토)-조용형(제주)-김창수가 왼쪽부터 포백 수비라

축구 사우디전 예상 베스트 11



인에 배치된다. 또 ‘거미손’ 이운재(수원)가 변함없이 골키퍼 장갑을 낀 전방이다.

이번 경기에서 눈여겨봐야할 것은 스트라이커 ‘듀오’ 이근호와 박주영이 사우디아라비아 골문을 시원하게 뚫어줄지 여부다. /연합뉴스